정책연구보고서 2015-15

마을축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한상헌

대전발전연구원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 한상헌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조사원	• 박으뜸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 목 차 -

제 1 장 서론 ····· 3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3
2.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 4
1) 연구 방법 ····· 4
2) 연구 내용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 7
1. 마을축제에 관한 개념규정 ····· 7
1) 축제의 개념 변화 ····· 7
2) 축제의 기능 ····· 7
2. 마을축제의 유형과 흐름 ····· 8
1) 마을축제의 유형 ····· 8
2) 마을축제의 최근 흐름 ····· 8
3. 마을축제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선행연구 ····· 9

제 3 장 대전 마을축제 현황 ····· 15
1. 대전 동구 ····· 15
2. 대전 중구 ····· 24
3. 대전 서구 ····· 29
4. 대전 대덕구 ····· 33
5. 대전 유성구 ····· 36

제 4 장 민간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마을축제 ····· 47
1.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 47
1) 추진배경과 목적 ····· 47
2) 2015년도 사업개요 ····· 49
3) 성과와 보완점 ····· 49
4) 2014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된 마을축제 현황 ····· 50
2.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된 주목할 만한 마을 축제 ····· 51
1) 대전 동구 ····· 51
2) 대전 중구 ····· 55
3) 대전 서구 ····· 59
4) 대전 대덕구 ····· 61
5) 대전 유성구 ····· 67
3. 축제 개최과정에서 나타난 현상과 인식 ····· 69
1) 시행착오와 갈등 ····· 69
2) 축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 ····· 75

제 5 장 마을축제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 85
1. 지원의 목적과 방향 설정 ····· 85
2. 지원방안 ····· 87

참 고 문 헌 ····· 90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마을축제가 개최되지만 산만하고 목적의식이 부족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축제의 본래 의미를 살려 주민 간 커뮤니티 형성과 이를 통해 주민화합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활로 개척이 필요

2) 연구 목적

○ 대전시 자치구별 마을축제의 현황과 실태 조사

○ 마을축제의 특성화 및 문화적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방안 창출

○ 기존의 마을축제에 관한 연구는 경제적 진흥방안에만 초점이 맞춰짐

○ 마을축제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탄탄한 기반 역할 방안을 모색

○ 마을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마을축제 주최 측에 수익모델 제안

2.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1) 연구 방법

○ 자치구별 마을축제 개최 현황 실태조사

- 최근 1년간 구별 마을축제 개최 현황 및 운영방식 조사

- 관 주도 축제와 민간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대조해 분석

○ 마을축제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형성 과정

- 2014년도에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을 받아 축제를 개최한 단체들 가운데 총 15명을 개별 면담

○ 마을축제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

- 사회적 경제와 축제에 관한 외부 전문가에게 수 차례 자문

2) 연구 내용

○ 마을축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협력방안

— 마을축제를 통한 지역홍보와 방문객 유치방안

○ 마을축제 활성화 및 정착방안 / 사업 실시와 이후 확대 과정 검토

— 마을축제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지원방식

○ 마을축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내의 유기적 관계망 구축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마을축제에 관한 개념규정

2. 마을축제의 유형과 흐름

3. 마을축제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선행연구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마을축제에 관한 개념규정

1) 축제의 개념 변화

○ 축제는 목적과 내용, 구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갈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단체)이 그 목적달성을 위해 상당수의 사람들을 한데 모아 시간과 공간(장소와 기회)을 공유하는' 이벤트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지님(정선기, 2010)

○ 과거의 축제가 전통적 관습에 따라 사회구성원을 통합하는 제의적 성격이 강했던 것에 비해, 오늘날의 축제는 다양한 취향을 충족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거두려는 복합적 의미가 중요해짐

○ 따라서 오늘날 지역 축제는 '전통축제뿐만 아니라 문화재, 예술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들을 비롯한 각 지역의 문화행사 전반이 포괄됨'(이홍원, 2003)

2) 축제의 기능

○ 원시사회부터 축제는 일상의 지친 삶을 여럿이 한데 모여 어울리면서 위로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담당해옴

○ 특히 지역축제 및 마을축제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연출하는 지역의 자존과 화합의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로 작동

○ 축제의 프로그램들은 삶의 치유효과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문화컨텐츠로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반상철, 2007)

2. 마을축제의 유형과 흐름

1) 마을축제의 유형

○ 주민화합축제 : 주민간의 단합과 동질감 고취를 위해 지역주민 다수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특성구(시·군)의 날 행사, 위안경축행사, 체육대회 등이 해당

○ 전통문화축제 : 지역의 전통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지역에 대한 귀속감과 공동체의식 강화. 유교문화제 등이 해당되며 관광축제와 결합되기도.

○ 관광축제 : 지역의 유형 또는 무형의 관광 인프라를 배경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음식축제, 거리축제 등이 해당

○ 산업축제 : 농업, 축산업, 어업, 상업 등의 발전을 목적으로 관광개발형 축제와 결합되기도.

○ 특수목적축제 : 특정 인물이나 사건, 사회적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개최. 환경축제, 계승대회, 추모제 등

구분	주요예시
축제소재	전통문화, 문화예술, 지역특산물, 역사인물, 자연생태, 지역특성 등
개최목적	주민화합, 관광상품, 지역산업진흥, 특수목적 등
구성체계	체험중심, 공연중심, 전시중심, 혼합형 등
프로그램	단일형, 이중형, 다목적형 (전통문화, 현대생활, 특산물, 지역테마 등)
응용정도	경제활성화, 사회교육화, 문화교류확산, 정치적 활용, 지역환경개선 등

2) 마을축제의 최근 흐름

○ 축제기획자와 관광자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고 단순히 관람하던 것에서 탈피해 자발적, 역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

○ 역설적으로 관광 상품이 그동안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축제를 통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 비슷한 유형의 지역축제들이 전국적으로 범람하면서 보다 차별화된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

3. 마을축제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선행연구

○ 임묵・장인식(2011)

- 삶의 질을 높이고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커뮤니티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

- 기존 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상향식 축제를 지향할 것을 주문.

- 중앙정부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축제가 유용히 활용될 수 있으리라 전망.

- 활성화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한 관 주도의 방안에 치우는 한계를 보임

○ 반상철(2007)

-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과제를 사회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구분

- 지역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문화적으로 차별화된 지역 정체성이 필요하며, 문화적 차원의 의식수준 성장과 지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축제가 기획되어야 한다고 주장

- 지역축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계획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여전히 지역공동체보다 산업적 측면을 중요시.

○ 고원규(2011)

- 지역 축제에서 나타나는 문화 권력이 정치, 경제 권력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 축제를 헤게모니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출발.

- 이러한 관점으로 축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집단들의 갈등, 참여주체에 따른 효과 등과 같이 지역축제의 과정에 주목하여 사례 분석

- 지역축제의 함의를 새롭게 고찰하는 시도

○ 김성현(2005)

- 지역축제에서 지역산업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와 그 이용정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으나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보임

○ 김철원, 서현숙, 이태숙(2012)

- 지역주민들은 축제영향 중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여 그 요인들 중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그와 연결해서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계량적으로 측정

○ 홍사열(2012)

-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축제들을 비교하여 축제 주도집단에 따라 축제의 특성의 차이와 축제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질적연구를 통해 밝힘

- 마을축제와 시군단위의 축제를 축제의 기반요소에 중점을 두고 분석

- 축제 주도집단을 주민주도형/생업관련 산업농 주도형/축제기획자 주도형으로 삼분

○ 한양명(2005)

- 일본의 성공적 마을축제라 평가되는 요사코이 소란마츠리의 기반(4가지)을 토

대로 성공요인을 상세히 분석.

- 소란마츠리와 리우카니발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축제에 외국의 성공사례 적용 가능성을 모색

- 특히 지역성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강조

○ 안덕초, 신현정, 김용근(2010)

- 장소자산으로서의 지역축제를 고찰해 지역축제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강화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창출하는 과정을 탐구

- 축제에는 추진주체와 장소를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사례 중심으로 농촌축제 계획을 설명

제 3 장

대전 마을축제 현황

1. 대전 동구 / 2. 대전 중구
3. 대전 서구 / 4. 대전 대덕구
5. 대전 유성구

제 3 장 대전 마을축제 현황

1. 대전 동구

1) 자치구 특성

○ 구한말 대전이라는 도시가 생성되던 시기부터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로 주도적 역할

○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던 무렵부터 서구와 유성구가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

○ 많은 원주민들이 서구와 유성구로 이동하면서 공동체의 필요성과 동구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반대급부로 중요해짐

2) 주요 축제 현황

(1) 정월대보름 관련 마을 축제

대전 동구 정월대보름 관련 마을축제(2014년도)

일자별	행사명(장소)	내용	주관
2. 12 09:30~16:30	대청호반 정월대보름행사 (SK네트웍스(주)부지)	대보름제, 지신밟기, 달불놀이, 물고기방생 등	대청호반 정월대보름 행사추진위원회
2. 13 18:30~19:00	중앙소제당산제 (소제동철갑교옆)	당산제	중앙동 소제 당산제 봉행위원회
2. 13 18:00~19:10	장승제 (대동교옆장승터)	장승제, 달집태우기	장승제 봉행위원회
2. 13 19:00~20:00	탑 제 (용방마을 앞 할아버지탑)	고사, 풍물놀이 윷놀이, 탑제봉행	용운동 탑제 봉행위원회
2. 13 18:00 / 19:00	산신제/산신각(가양동) 거리제 / 두껍바위(가양동)	산신제, 거리제, 풍물놀이 등	지역문화보존협의회
2. 13 18:00~익일01:00	장승제 (비룡동90-1마을회관앞)	장승제, 오방돌기, 달집태우기	비룡동 장승보존회
2. 14 09:00~16:30	산내공주말 디딜방아뱅이 (산내주민센터)	마을제, 민속놀이, 달불놀이, 풍물, 디딜방아뱅이재연 등	산내공주말 디딜방아뱅이 추진위원회

① 대청호반 정월대보름행사

주관단체	대전광역시동구/대청호반정월대보름행사추진위원회
최근 개최일	정월대보름
개최장소	대전시 동구 SK네트웍스부지, 대청동 주민센터 옆
최초 개최년도	2002년, 총 15회 진행

○ 내용 : 대보름제, 달불놀이, 민요와 사물놀이, 지신밟기, 윷놀이, 물고기 방생 등

- 정월 초이레부터 시작해 열사흘까지 걸립풍장놀이, 당제길잡이와 뒷풀이,

- 민속행사로는 마산동 칠성제, 용계동 용왕제 등이 이어져

- 달불놀이, 달집태우기와 대청호에 물고기를 방생하는 행사는 주민 모두가 참여해 한해 소원을 빌며 추억을 만드는 내용

- 마을별 윷놀이와 노래자랑도 함께 열려 정월 대보름 분위기를 고취

○ 취지 : 대청호로 인해 동서로 갈라진 대청동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

※ 1980년대 초 대청호 수몰로 거의 사라지자 지역민이 2002년 1월 대청호반정월대보름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5년까지 총 15회의 행사 진행

② 당산제

주관단체	중앙동 소제 당산제 봉행위원회
최근 개최일	정월대보름
개최장소	소제동 철갑교 옆 장승 모신 곳

○ 내용 : 당산제 유래 및 취지 설명, 봉행 및 소지축원, 철상 및 음복 등

○ 취지 : 매년 정월 망일 즉 정월 열나흘이면 악성질병과 각종 재앙을 물리쳐 가가호호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에서 시작하여 전래되어온 소제동 고유의 동 단위 민속행사

※ 조선조 유학자였던 우암 송시열이 소제동으로 이사 온 후 소제동의 수호신으로 돌장승을 모셔 동네의 안녕과 질병퇴치를 빈 것에서 유래

③ 장승제 (대동)

주관단체	장승제 봉행위원회
최근 개최일	정월대보름
개최장소	대동교 옆 장승터

○ 내용 : 지역안녕 및 발전기원 제례의식 등

○ 취지 : 현대화·산업화로 인해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민속을 재현하고자 1988년 12월에 동구청장이 부근에 흩어져 있던 옛 석장승과 없어진 신앙물을 새로 제작하여 이곳에 안치하였고 이를 전승하고자 매년 음력 정월열나흘 저녁에 노인회 주관으로 마을주민들이 모여 제를 올림

※ 장승제는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속 신앙물로서 장터나 돌기둥 위에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앉힌 신앙 대상물을 말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제를 지낼 때에 마을 안녕과 수호, 그리고 풍농을 위하여 마을입구에 세웠다고 함

- 장승, 선돌, 탑(돌무덤), 신목등은 솟대와 함께 세워져 마을의 하위신 또는 주신으로 모셔 왔다고 함

④ 탑제

주관단체	용운동 탑제봉행위원회
최근 개최일	정월대보름
개최장소	용방마을 아파트 앞 할아버지탑
최초 개최년도	

○ 내용 : 탑제유래 및 취지설명, 탑제봉행 및 소지축원, 철상 및 음복 등

○ 취지 :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을 되살려 주민화합과 우리전통문화를 계승발전

※ 용운동에 서 있는 장승 옆에는 본래 돌로 쌓아 올린 탑이 함께 있어 주민들로부터 치성을 받아 왔는데 1970년대 초에 도로를 넓히면서 탑은 소실되고 장승만 남게 됨. 장승과 탑을 아울러 탑제로 칭함

- 탑의 축조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질병과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탑을 세웠다는 점에서 공통점. 소실된 탑의 크기는 할아버지탑이

2.5m, 할머니탑은 2m가량 되는 매우 큰 탑이었으며, 매년 탑제를 지낼 때 황토를 펴고 금줄을 쳤다고 전해짐

⑤ 장승제 (대청동)

주관단체	비룡동 장승 보존회
최근 개최일	정월대보름
개최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수로길 59-13(비룡동) 일원

○ 내용 : 비룡 대보름 장승제, 동네 오방돌기 등

○ 취지 :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민속을 재현하고자 1988년 12월에 동구청장이 부근에 흩어져 있던 옛 석장승과 없어진 신앙물을 새로 제작하여 이곳에 안치하였고 이를 전승하고자 매년 음력 정월열나흘 저녁에 노인회 주관으로 마을주민들이 모여 제를 올림

※ 장승제는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속 신앙물로서 장터나 돌기둥 위에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앉힌 신앙 대상물로 마을 주민들이 제를 지낼 때에 마을 안녕과 수호, 그리고 풍농을 위하여 마을입구에 세웠다고 함. 장승, 선돌, 탑(돌무덤), 신목 등은 솟대와 함께 세워져 마을의 하위신 또는 주신으로 모셔옴

⑥ 산내공주말 디딜방아뱅이 (산내동)

주관단체	산내 공주말 디딜방아뱅이 추진위원회
최근 개최일	정월대보름
개최장소	산내동 주민센터 및 관내

○ 내용 : 1일차(지신밟기 및 전야행사), 2일차(디딜방아뱅이 재현행사 등)

○ 취지 : 동구 산내지역 정월대보름 거리제에서 마을 사람의 무병장수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와 놀이로 행해져 왔던 것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절기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행하였다고 함

※ 산내 공주말 디딜방아뱅이는 1999년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대전광역시를 대표해서 나가 입상한 바 있으며, 특히 동구 산내동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디딜방아뱅이 재현행사를 개최 중

⑦ 산신제 및 거리제

주관단체	지역문화보존협의회
최근 개최일	정월대보름
개최장소	명석고등학교 뒷산 내 산신각 및 가양동 두껍바위

(2) 우암문화제

주관단체	대전동구문화원, 남간사유회
최근 개최일	2014년 10월
개최장소	우암사적공원(가양동 소재)
최초 개최년도	1996년, 19회 진행
후원	은진송씨대종중, 성균관

○ 내용 : 우암백일장, 가족음악회, 전국 한시 백일장, 전국 강경경연대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전통혼례 재연행사 등 ※ 예산규모는 5500만원

- 강경경연대회, 한시백일장, 휘호대회, 도의사례 발표 등 옛 선비의 전통적인 모습을 재현해 보는 행사로 진행. 동구문화원 주관으로 우암백일장 개최

○ 취지 :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정신과 사상, 학문 예술 등에 대하여 시민에게 이해시키고 널리 홍보하고, 충·효·예 사상 고취 및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홍룡마을 가마놀이 재연 및 벚꽃축제

주관단체	홍룡마을 가마놀이 보존회
최근 개최일	2014년 4월
개최장소	더퍼리길/남간정사 ~ 대주파크빌 후문
최초 개최년도	2005년, 10회 진행

○ 내용 : 홍룡마을 가마놀이 재연, 빛고을합창단 공연, 산신제, 제주와 주민들의 만남, 두껍바위 고사, 주민 화합의 장 ※ 참여인원 : 10,000여명

- 체험·잔치마당 운영: 가훈 써주기, 전통난장 등

○ 취지 : 약 350여 년 전부터 전승된 '전통 민속놀이'로 출가를 앞둔 처녀가 혼기에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져

- 조선 중기부터 전해오다 해방 전후에 맥이 끊겼으나 최근 보존회를 통해 복원

(4) 용수골대학로연합축제

주관단체	대학로문화콘텐츠협의회
최근 개최일	2014년 10월
개최장소	용수골대학로 야외공연장
최초 개최년도	2008년, 7회 진행
후원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전보건대학 등

○ 내용 : 노래, 악기 연주, 마술, 춤 등 젊은이들의 끼와 장기 자랑, 대학로 젊은이들과 주민들의 축제 한마당

※ 2015년부터 레인보우페스티벌로 새롭게 기획 개최

- 개최시기 : 2015년 7월~10월(4개월)

- 취지 : 대학 밀집지역인 용운동, 자양동 대학로 거리를 젊음과 낭만이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 대학과 인근주민, 주변상권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화합의 장

- 내용 : 복고패션쇼, 대학로 물총싸움, 버스킹 데이, 도전! 골든벨, 대학로 연합축제(참가자 공연, 초대가수 축하 공연, 레이저 불꽃쇼 등)

(5) 가족한마당축제

주관단체	대전 동구 드림스타트
최근 개최일	2014년 10월 14~15일
개최장소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 내용 : 가족명랑운동회, 가족만들기 체험, 캠프 파이어 체험 등

2. 대전 중구

1) 자치구 특성

○ 구한말 대전시의 출발 당시부터 행정, 교통, 문화의 중심지였으나, 1990년대 이후 서구와 유성구에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주도권 상실

○ 대전시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지원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 문화의 중심지로 다시 부상 중

○ 특히 대중문화예술인과 20~30대의 젊은 계층 유입이 증가 추세

2) 주요 축제 현황

(1) 2014 대중문화예술특화거리조성사업(토요페스티발 / 아트프리마켓)

주관단체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최근 개최일	2014. 6. 14 ~ 2014. 9. 13
개최장소	대전 중구 대흥동 우리들공원
최초 개최년도	2012년, 총 3회 사업 진행
후원	대전광역시, 대전중구청

○ 소요예산 : 138,700,000원(토요페스티벌: 1억8백7십만원 / 아트프리마켓: 3천만원)

○ 취지 : 시민이 다가오고 함께 어우러지는 성공적인 대중문화예술의 특화거리 조성

○ 내용 : 마샬아츠트릭킹, 록 밴드 공연, 비보이 공연, 댄서 퍼포먼스, 예담팝스 오케스트라 연주, 성인가요대축제, 7080 낭만콘서트 등

(2) 충무자동차특화거리 문화축제

주관단체	충무자동차특화거리 상점가
최근 개최일	2014년 11월 1일
개최장소	대사동 충무자동차특화거리 야외무대
최초 개최년도	1999년(1999~2009년까지 개최), 2014년 재개

○ 내용 : 자동차특화거리전시, 밸리댄스 초청공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 어르신 점심식사 대접

- 자동차회사별 이색적인 카퍼레이드와 차량전시, 노래자랑, 세일 및 경품행사 등

- 지역 대학의 자동차학과와 자동차 생산업체가 참여해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후 1개월간 고객 사은 이벤트를 개최

※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전문 상가가 밀집한 충무자동차특화거리가 발달하면서 1999년부터 번영회가 특화거리에서 직접 개최를 시작

(3) 사랑나눔김장축제

주관단체	대전 중구, 중구자원봉사협의회
최근 개최일	2014. 11. 20.
개최장소	부사동 다목적 회관
최초 개최년도	2014년, 1회

○ 내용: 중구청장, 중구자원봉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자원봉사회원이 참여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전달

○ 목적: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전달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개최

(4) 문창동 살구꽃축제

주관단체	문창동살구꽃축제위원회
최근 개최일	2015년 3월 27일
개최장소	문창시장 공영주차장
최초 개최년도	2011년, 총 4회 진행

○ 내용 : 주민센터 프로그램 발표, 우리동네 가수왕 선발대회, 즉석 노래자랑, 직접 담근 살구주 시음회 등

(5) 산신제 및 거리제

① 무수동 산신제

주관단체	무수동산신제보존회
최근 개최일	정월 대보름
개최장소	무수동 일대
최초 개최년도	조선시대 후기

○ 취지 : 매년 음력 정초에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의례로 약 300여년 전부터 안동 권씨 집성촌인 무수동에 전래되고 있는 마을신앙으로서, 해마다 음력 정초에 길일을 택해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의례

○ 내용 : 쥐불놀이, 강강술래, 음식 나눠먹기

- 무수동 산신제 토제마 짐대놀이: 매년 음력 1.14일 무수동 일대에서 행해지는 마을 공동의 제의식과 놀이를 재현. 중구 무수동 국사봉에서 출토된 다섯 마리의 토제마(土製馬)를 모티브로 한 '토제마 봉안', '산신제', '대보름 거리제'로 구성

- 산신제는 정월 초하루 날에 무수동 운람산 중턱에 위치해 있던 산제당 당집이 있던 자리에서 재현. 당일 아침이 되면 제관은 산제당으로 올라가는 길을 뚫고 제당과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왼새끼를 꼬아 금줄을 치고 황토를 주변에 한 줌씩 뿌린 다음 산제샘을 깨끗이 퍼내고 청소한 뒤에 제관은 날이 저물면 떡과 제물을 준비해 놓고 화톳불로 메[밥]를 지어 올리고 제물을 진설

- 토제마짐대놀이는 산신제와는 별도로 음력 1.14일 저녁에 참여자들이 초저녁부터 풍장을 울리며 마을을 한 바퀴 돌아 액운을 물리친 다음 장승·솟대가 있는 동구 밖으로 가서 거리제를 지낸 후 마을입구에 장승을 세우는 것으로 막을 내림

※ 무수동 산신제 및 토제마짐대놀이는 2008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민속예술축제 대전광역시 대표로 참가하여 은상 수상

- 2011년 10월에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

② 유천동

주관단체	유향계
최근 개최일	정월대보름
개최장소	유천동 일대
최초 개최년도	16세기 중반(구전에 의함)

○ 취지 : 버드내 동민들의 액운을 막고 안녕과 번영을 축원하는 제

○ 내용 : 거리제, 산신제

- 거리제는 음력 정월 14일 저녁에 '김서방 도깨비'를 대상으로 하여 동네의 액운이 없기를 기원하는 제의. 제의 비용은 해마다 걸립을 돌아 집집마다 쌀 한 되를 거두어 충당. 본래 거리제를 마치면 밤새 풍장을 치며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윷놀이, 쥐불놀이를 하며 3일을 노는 풍습이 전해져

- 산신제는 매년 동짓달에 길일을 택하여 지내오다가 20여 년 전부터는 동짓달 초삼일로 고정. 또 예전에는 산신제를 앞두고 부정한 일이 생기면 일주일쯤 제일을 연기하여 지냈으나 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일이 부정을 가릴 수 없어 요즈음은 초상이나 출산에 개의치 않고 지냄.

○ 기원: 약 450년 전 당시 산제당이 선 자리는 보문산의 영기를 받은 곳으로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유독 높이 솟아 있어 산제당을 짓고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

※ 유천동 산신제는 '97년 1월 9일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

- 산신제는 옛부터 버드내 중평에 거주하는 동민을 중심으로 '유향계'를 조직하고 매년 유향계에서 제를 주관하며, 현재 유향계에 가입되어 있는 주민은 120여명.

3. 대전 서구

1) 자치구 특성

○ 1990년대 이후 둔산 지역이 개발되면서 행정,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

○ 현대 문화예술 시설들이 곳곳에 운집하고 있어 고급예술을 향유하는 수요에 발맞추는 행사들이 증가

○ 전통적 유산이 타 구에 비해 적어 정림동 등 이전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이 점점 주목받고 있음

2) 주요 축제 현황

(1) 느티나무 목신제

주관단체	서구문화원
최근 개최일	2014. 2. 14.
개최장소	둔산동 샘머리공원

○ 취지 :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구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지역향토 고유 민속을 승화·발전시켜 보존·전승

○ 내용 : 가훈 써주기, 토정비결, 민속놀이 체험, 목신제 행사(길놀이 풍물 등)

(2) 정림동 벚꽃축제

주관단체	정림사랑자생단체연합회
최근 개최일	2015. 4. 11.
개최장소	정림동 갑천 둔치
최초 개최년도	2012, 4회 진행

○ 내용 : 주민건강 갑천누리길 걷기대회, 정림동 자생단체연합 8개 단체가 준비한 '먹거리 나눔 바자회(잔치국수, 홍어무침, 부침개 등)', 문화공연, 장기자랑, 밸리댄스, 난타공연, 민요공연, 주민장기자랑, 불꽃놀이 등

(3) 한여름밤의 음악회

주관단체	서구/코리안필하모니팝스오케스트라
최근 개최일	2014. 8. 13. / 8. 27.
개최장소	둔산동 샘머리공원 / 도안동 도안초
최초 개최년도	2011, 4회 진행

○ 취지 : 음악회를 통해 무더위를 식히고, 지역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 공연

○ 내용 : 뮤지컬 음악부터 대중가요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 2014 출연진 : 코리안필하모니팝스오케스트라, 브레스, 도시탈출, 미래태권도팀

(4) 대전 견우직녀 축제

주관단체	대전문화재단/대전mbc
최근 개최일	2014.08.02(토) ~ 2014.08.03(일)
개최장소	서구 엑스포시민광장
최초 개최년도	2006년, 10회 진행
후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지방경찰청,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대전마케팅공사,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한국관광공사, 전광역시관광협회

○ 취지 : 견우직녀 설화를 소재로 한 관람객 참여형 축제

○ 내용 : 커플이벤트, 지역문화공연, 별자리 관련 체험행사

(5) 숲속의 관현악 페스티벌

주관단체	대전광역시, 대전MBC, 대전시립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
최근 개최일	2014.8.29.(금) ~8.31.(일)
개최장소	보문산 야외음악당
최초 개최년도	2014, 1회 진행

○ 주제 : '원도심 활성화'와 '보문산 야외음악당 새 르네상스 열기 '

○ 취지 : 대전시에서는 새롭게 단장한 보문산 야외음악당을 활용, 편안한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낭만과 고품격 공연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함

○ 내용 : 클래식, 퓨전 국민 대중가요 등 KBS 열린음악회 형태

※ 무료셔틀버스 운행

(6) 행복 서구한마당

주관단체	대전광역시 서구
최근 개최일	2014.10.11.
개최장소	엑스포 시민광장
최초 개최년도	1990, 25회

○ 취지 : 서구민의 날 기념

○ 내용 : 동대항 화합경기(관내 23개동이 참여), 구민한마음 음악회(가수 초청),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 등 진행

4. 대전 대덕구

1) 자치구 특성

○ 대전시의 전신인 회덕현이 위치해 유교적 전통과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

○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원주민과 유입민 사이의 소통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2) 주요 축제 현황

(1) 동춘당문화제

주관단체	대덕구체육회, 대덕문화원, 회덕향교
최근 개최일	2015년 4월 25일 ~ 26일
개최장소	송촌동 일대
최초 개최년도	1996년, 총 19회 진행
후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은진송씨동춘당문정공파중종

○ 내용 : 대덕구민 화합의 장, 전통문화의 장, 문화예술 체험의 장 등 3개 분야 20개 행사 진행

- 동춘당을 기리는 전통유교식 제례인 숭모제례, 한시 낭송,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전강독, 중리중학교부터 동춘당근린공원까지 취타대, 호위무관, 포졸, 가마꾼, 교생 행렬 등 300여 명이 참가한 문정공 시호 봉송행렬, 마당극패 우금치의 동춘당 서사극 등

※ 2015년 동춘당문화제는 '탄신 409주년, 동춘당과 만나다'를 주제로 구민화합대회를 겸해 열리던 과거와 달리 동춘당의 학문적 업적과 선비정신을 기리는 순수 문화제로 개최

(2) 대덕어린이한마당 큰잔치

주관단체	대덕구
최근 개최일	2015년 5월 5일
개최장소	송촌동 동춘당근린공원
최초 개최년도	2015년, 1회

○ 주제 : 어린이가 행복한 대덕구, 우리가 만들어요!

○ 내용 : 어린이 난타, 어린이 그룹사운드 공연, 어린이태권도 시범, 댄스공연, 인형극, 레크레이션, 매직&버블 등

- 체험부스 운영 : 다문화체험,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교통표지판 만들기, 고무줄차 만들기, 심폐소생술 체험, 동춘당 역사기행 등

(3) 2014 대덕구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주관단체	대덕구, 대덕문화원
최근 개최일	2014년 2월 13일
개최장소	회덕동주민센터 뒤편 읍내동 뒷골장승 일원
최초 개최년도	2012년, 3회 진행

○ 내용 : 연축동 연마을 먹거리 부스(연잎차 등), 장동공방(나무를 이용한 친환경 생활소품), 읍내동 뒷골 장승제, 판타지 사물놀이, 대덕구민 윷놀이 대회 등

(4) 대덕구 주관 정월대보름 행사

- 대복기원 한마당(대덕문화원)
- 신탄진 쥐불놀이 축제(현도교)
- 목상동 들말 달맞이(목상동 FC축구장)
- 이현동 수구제(이현동 배고개 둥구나무)
- 장동 산디마을 탑제(산디마을 입구)
- 법동 범천골 장승제(법동 석장승)
- 비래동 느티나무 수호제(비래동 느티나무)
- 읍내동 당아래 장승제(읍내동 당아래주유소 건너편 석장승)
- 읍내동 뒷골장승제(회덕동 주민센터뒤)
- 부수동 부수골 거리제(부수골 느티나무)
- 용호동 상용호 장승제(용호동 우측 석장승) 등

5. 대전 유성구

1) 자치구 특성

○ 전통적으로 유성온천을 소재로 한 관광 콘텐츠가 발달했으나 1970년대 이후 대덕연구단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메카로 중요성이 강조됨

○ 구 차원에서 마을축제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행사를 기획 진행

○ 유성구 궁동지역은 관내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 다문화 가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며, 유성구에는 100여 개국에 7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

2) 주요 축제 현황

(1) 유성온천 문화축제

주관단체	유성구, 유성문화원
최근 개최일	2015. 5. 8.~2015. 5. 10
개최장소	온천로 일원, 계룡스파텔광장, 갑천변, 유성전통시장
최초 개최년도	1989, 22회

○ 2014년 축제참가인원(명) 45만 명

○ 2014년 소요예산(천원) 7억 5천만 원

○ 주제 : 천년온천 유성의 천 가지 즐거움!

○ 취지 : 유성 온천의 유래와 효능을 토대로 ‘온천’을 주제로 한 축제 시작, 과학의 도시 유성을 알릴 수 있도록 과학과 온천을 접목시켜 축제 프로그램 운영

○ 내용 : 공식행사,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 공식행사: 온천퍼레이드, 유성온천 수신제, 개막식, 개막 주제공연 등

- 공연행사: 온천 플래시몹 공연, 온천수 착정놀이, 전통시장 공연, 뷰티 헤어쇼,

풍물대동제 등

- 체험행사: 유성온천수 무료 족욕체험, 온천수 무료 수영장&놀이터, 온천테마탕, 온천수 과학체험, 대덕특구 과학탐방 투어, 녹색성장 체험관, 코끼리열차 운행, 온천수 물터널. 유성온천 역사문화탐방, KAIST 로봇 체험, 사회적경제 한마당 등

- 부대행사: 온천발전 심포지엄, 세계 이색 음식코너, 유성특색 먹거리 장터, 이팝나무 거리 경관 조명 등

※ 유성온천문화축제는 1989년 유성온천과 과학도시 유성의 소중함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계승시킨 축제라 평가됨

- 순수 주민참여형·주도형 축제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축제라는데 큰 의미.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체험부스 역시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주도로 운영

(2) 유성구 국화전시회

주관단체	유성구청
최근 개최일	2014.10.11. ~ 2014.11.02.(2주)
개최장소	유성구 유림공원
최초 개최년도	2011, 4회

○ 내용 : 국화전시-60여 종의 국화 3천만 송이와 꽃탑 2개, 조형물 500개, 80m에 이르는 대형 식물터널 등이 전시

- 유림공원 잔디광장에서는 국화향기 가을음악회(유성문화원 팬 플루트 공연 등)

- 야외무대에서는 LED 풍선날리기 및 뮤직 불꽃쇼, 경품추첨 등이 진행

※ 2013년 열린 국화전시회는 당초 2주간 열기로 계획했다가 주민 반응이 좋아 1주를 연장해 누적 관람객 55만 명을 기록

- 모든 꽃은 유성구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1년간 직접 재배해 불필요한 예산 감소

(3) 유성구 사회적 경제 한마당

주관단체	유성구, 유성구사회적경제협의회
최근 개최일	2014.10.18
개최장소	유성구 유림공원
최초 개최년도	2014년, 1회

○ 주제 : 함께 돕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누리는 참다운 행복

○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체험부스운영, 사회적경제 포토존 등의 홍보 부스, 길거리 공연, 도시형장터, 벼룩시장 등의 부대행사

(4) 제 4회 구즉동 한마당축제

주관단체	구즉한마당축제추진위원회, 송강사회복지관
최근 개최일	2014.10.11.
개최장소	유성구 구즉동 송강근린공원
최초 개최년도	2011년, 4회

○ 주제 : 자꾸자꾸 유성이 좋아집니다

○ 내용 : 풍물세몰이, 세발자전거대회, 청소년골든벨대회, 공연, 체험코너

- 체험코너는 페이스페인팅, 벼룩시장, 리본공예, 다문화음식, 풍선아트, 바람개비만들기, 보드게임, 바자회 등

- 부대행사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국수, 전통묵, 파전 등을 제공

※ 2014년에는 지역주민 약 2,000여명 참여

- 학교 한울타리 동아리와 청소년지도연구원이 함께 다문화가족들과 다문화음식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이주여성과 같이 음식을 만들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송유관공사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후원과 경품지원

(5) 탄동천 숲향기길 걷기대회

주관단체	유성구 신성동
최근 개최일	2015.04.11
개최장소	사이언스 대덕 종합운동장
최초 개최년도	2013, 3회

○ 주제 : 함께 걸어요, 숲향기 가득한 탄동길!

○ 내용 : 식전공연, 풍선날리기, 지압안마 프로그램, 먹거리 부스

- 걷기대회는 사이언스 대덕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애경연구소를 거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다시 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원형코스로 진행

※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신성동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해 성립

(6) 사랑의 나눔장터

주관단체	유성구,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최근 개최일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개최장소	반석역, 노은역, 엑스포근린공원, 도안작은내수변공원 등 4개 권역
최초 개최년도	2013년(10월)

○ 취지 : 자원순환형 사회정착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나눔장터

○ 내용 : 알뜰매장, 바자회, 테마장터(경제 골든벨, 먹거리 부스 등)와 다양한 체험행사(캐리커처 등)

※ 향후 동별 마을축제와 연계해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나눔문화와 경제 개념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

- 수익금은 전액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됨

(7) GO!GO! 페스티벌! (돌GO!보GO!사GO!)

주관단체	대전광역시 유성구
최근 개최일	2014년 11월 9일(일)
개최장소	유성 장터 공연장
최초 개최년도	2013년, 2회 진행

○ 내용: 대학동아리공연, 장터노래자랑, 축하공연 진행

- 참여대학동아리: 국악연구회 약도랑(충남대), 옥타브(한밭대), 입큰개그리(충남대), 중앙풍물패(충남대), 크래커(목원대), A.W.(충남대)

- 자원봉사자: 장보기 체험,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실시

(8) 이슬람문화페스티벌

주관단체	유성문화원, GCM 좋은사람들
최근 개최일	2014. 9. 27.
개최장소	유성온천로 두드림 공연장
최초 개최년도	2014년, 1회

○ 주제 : 사람과 사람을 잇고, 문화와 문화를 잇는 궁동 행복하모니

○ 내용 : 이슬람 전통춤, 음식, 놀이 등 문화체험, 한국 전통놀이 및 문화체험

- 참가국: 파키스탄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알제리, 이집트, 세네갈 등 16개국으로 국가별 유학생과 이주민들

- 참가인원: 국인 250명을 포함해 지역주민 등 1,000여 명 가량

※ 2014년 축제에 앞서 3월에 궁동 욧골 공원에서 외국인 및 지역주민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베트남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16년까지 국가별 축제를 추가 개최할 예정

(9) 노은2동 세미래 한마음축제

주관단체	노은2동 마을축제위원회
최근 개최일	2014. 9. 19.
개최장소	유성구 세미래공원
최초 개최년도	2011년, 총4회 진행
후원	노은2동주민센터, 기관 및 각 자생단체

○ 내용 : 공연마당(댄스, 연주, 사물놀이, 태권도 격파시범 등), 체험/참여마당(풍선아트, 도예체험, 가훈 써주기, 캐리커쳐 등), 부대행사(먹거리장터)

(10) 신성한마음축제

주관단체	신성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
최근 개최일	2014. 9. 20.
개최장소	대덕특구종합운동장
최초 개최년도	2006년, 9회

○ 내용: 신성프리마켓 및 농산물직거래 장터 등 진행

- 개막식 및 공연 행사는 춤과 노래, 연주 등 지역주민들의 열정과 재능으로 꾸미는 주민발표회 중심

- 네일아트 및 온천수노노케어, 에코디자인 공예, 전래놀이 한마당 등

(11) 진잠주민화합의 한마당축제

주관단체	진잠애향회
최근 개최일	2014. 9. 20.
개최장소	진잠초등학교
최초 개최년도	1998, 16회

○ 내용 : 세몰이 진잠풍물단, 경로위안잔치, 어르신 척사대회, 주민화합잔치, 청소년 페스티벌, 주민가요제 등

(12) 관평벤처골축제

주관단체	관평벤처골 축제추진위원회
최근 개최일	2014. 09. 27.(토)
개최장소	관평동 수변공원 야외무대
최초 개최년도	2011, 4회

○ 주제 : 2014 가을, 벤처골에 낭만이 깃들다

○ 내용 : 시범공연, 체험행사 등

제 4 장

민간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마을축제

1.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2.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된 주요 마을축제
3. 축제 개최과정에서 나타난 현상과 인식

제 4 장 민간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마을축제

1.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1) 추진배경과 목적

(1) 추진 주체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 2013년 2월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공익적 시민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해온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이 수탁하여 2013년 10월부터 업무 시작.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중점 사업

- 상호 신뢰의 네트워크를 마을과 일터에서 만들려는 시민들을 체계적 지원

- 마을포털, 마을교육, 마을미디어, 마을 일꾼, 커뮤니티 매핑, 마을네트워크 활성화 등 6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협력적 소비를 통해 배려와 협력을 체험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박람회, 대안합창제 등의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

(2) 2015년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전략 방향

○ 마을리더의 발굴과 성장의 양적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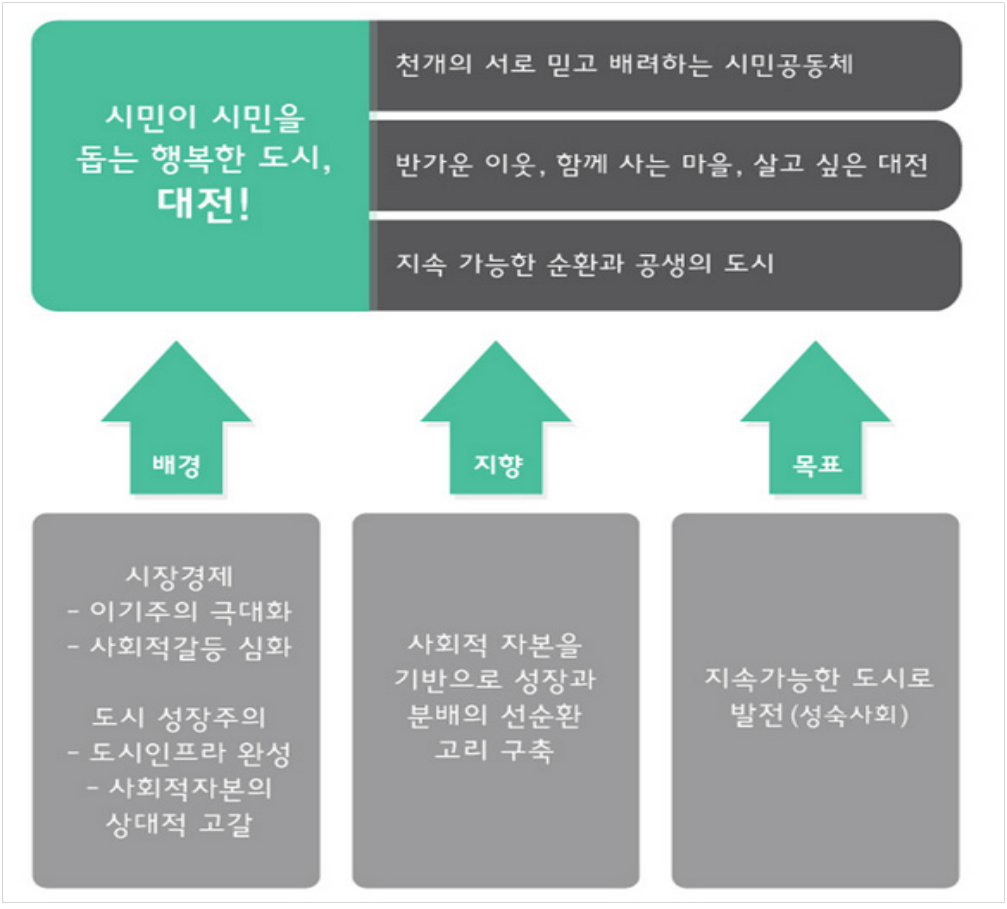
○ 지역별, 분야별 다양한 집단 네트워크 형성, 마을거버넌스 모델 형성

○ 마을문제 해결형 지역공동체 운동 실천 사례 발굴(리빙랩)

○ 마을활동가 포럼을 통한 시민주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구성

○ 시민 체감형 공유네트워크 형성 및 공유경제기업 설립 지원

○ 상시 지원시스템으로 주민의 자발적 욕구에 의한 맞춤형 마을 만들기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의 의미

2) 2015년도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 모이자 사업(신규 공동체 발굴 지원) / 해보자 사업(기존 공동체 발굴 지원)

○ 사업기간 : 2015. 3월 ~ 11월(9개월)

○ 사업대상 지역 : 대전광역시 /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위주

○ 지원규모 : 총 공모액 2억7천만원(모이자 사업 7천만원 / 해보자 사업 2억원)

○ 지원신청 자격

구분	모이자 사업 (신규 공동체 발굴 지원 사업)	해보자 사업 (기존 공동체 지원 사업)
대상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비영리 민간단체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상) ※ 마을공동체 시작 학교(4차시) 수료한 주민이 2인 이상일 경우 사업 지원신청 가능	○5인 이상의 주민모임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비영리 민간단체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상) ※ 단, 주민모임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와 협동조합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제외	○동일,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 및 단체	

3) 성과와 보완점

○ 주요 성과 : 주민 공동체의 발견 및 확대, 청년 공동체 활성화, 마을리더의 발굴과 성장, 마을문제 해결형 사례 발굴, 다양한 집단 네트워크 형성 등

○ 참여 공동체의 감소 : 2013년 226개 ⇒ 2015년 110개

○ 예산 감소 : 2013년 640,000천원 ⇒ 2015년 270,000천원

4) 2014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된 마을축제 현황

지역	단체	행사명	일시	2015 예정
동구	남대전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나바다화합장터	2014.10.18	
	새들뫼사랑방	새들뫼아파트 1단지 마을잔치	2014.10.09	0
	신사모	마을사랑축제	2014.09.27	0
	박평연사당 보전 및 선양 모임회	사생대회 및 백일장	2014.10.24	0
	새들뫼 참사랑	아나바다행사	2014.09.27	0
	소통과 화합의 한밭자이	주민화합한마당	2014.06.28	0
중구	삼삼이모 (삼부 3단지 이웃들의 모임)	마을운동회	2014.05.17	
	용마루 학습 사랑방	온가족 벼룩시장	2014.05.31	0
		어린이 놀이 한마당	2014.10.11	
	중촌마을문화축제추진단	제 8회 중촌마을문화축제	2014.10.19	
	대전YWCA	행복시장 나팔	2014.06.21	0
서구	난타로 소통하자	꿈터마을축제 공연	2014.09.20	
		월평1동 주민화합 및 경로잔치 공연	2014.10.16	
	보물단지 작은도서관	좋은 마을 축제	2014.10.18	
	달팽이 어린이도서관	달팽이 마을잔치	2014.10.25	0
	두리하나	마을축제 두리하나 홍보부스 운영	2014.10.18	
유성구	포도나무 작은 도서관	사랑나눔 바자회	2014.09.29	
	전민마을 숲사랑 모임	어울림마당	2014.11.22	
	시민참여연구센터	과학동네 작은 축제	2014.09.20	
	희망나눔 화통미인 자원봉사회	벼룩시장	2014.06.21	
		제2회 한빛가족화합한마당	2014.10.11	
		벼룩시장	2014.11.15	
대덕구	오정동 학습마을 추진위원회	가을음악회	2014.09.25	0
	목상동 학습마을 추진위원회	목상동학습마을축제	2014.10.29	
	대덕구 법1동 주공3단지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어울한마당	2014.10.08	0
	새 시장상가 번영회	주민화합잔치	2014.11.01	
	무지개 한마음회	주민단합대회	2014.10.18	
	굴다리 마을영화제 추진위원회	굴다리영화제	2014.10.13	0
	이현동 주민회	연축동, 장동 좋은마을 축제마당	2014.12.09	

2.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된 주목할 만한 마을 축제

1) 대전 동구

(1) 아나바다화합장터

주관단체	남대전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최근 개최일	2014년 10월 18일
개최장소	동구 낭월동 남대전 e편한세상 아파트 중앙광장

○ 개최 목적 : 이웃 주민과의 소통

○ 홍보 방법 : 리플릿 직접 제작, 아파트 내 방송 또는 초대장을 통해 홍보.

○ 특징

- 지자체에서 공식 지원금 이외의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

- 행사 준비 과정에서 게시판 공고로 물품 수급.

- 초기에는 대표회의에서 축제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 올해는 부녀회가 행사 주체 예정.

○ 마을 축제로 인한 경제적 수익 모델

- 장터에서 서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경제적 이득 가능.

- 장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물품을 기증받아 대표회의가 직접 판매, 수익금은 기부 혹은 부녀회 활동비로 쓰임.

○ 향후 진행 계획 : 오케스트라나 공연, 마을 주민들의 재능을 이용해 확장.

(2) 새들뫼아파트 1단지 마을잔치

주관단체	새들뫼사랑방
최근 개최일	2014. 10. 9
개최장소	동구 대동 새들뫼아파트 중앙 놀이터
최초 개최년도	2013년, 2014년 현재 2회째 개최

○ 프로그램 구성 : 아나바다장터, 주민 직거래, 솜씨 자랑, 먹을거리

○ 준비 주체

- 주민들끼리 필요 없는 물품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아나바다 장터를 마련.
- 2013년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하며 시작, 올해 2회째 진행 중.
- 축제 기획과 준비는 부녀회가 총괄, 각 동대표가 보조.
- 주민 센터로부터 천막 임대, CMB와 협력해 음악회가 가능한 무대 제작.

○ 홍보방법과 참여도

- 현수막,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 부착, 각 동에 안내문 팩스 전송.
-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SNS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 초대.
- 축제진행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홍보 효과 높아.

○ 특징

- 주민들의 주인의식과 축제에 대한 애착 및 책임감이 강함.
- 낮은 가격으로 먹을거리 판매, 먹을거리를 함께 먹으며 자발적으로 즐김.
- 수백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일반 주민은 물론 장애인들도 각자의 재능을 이용해 축제에 참여하는 등 지역민과 참여자의 호응이 높음.

○ 마을 축제로 인한 경제적 수익 모델

- 주민들이 축제 내에서 물품 판매나 재능을 이용해 수익 창출.

- 그 외에, 먹을거리 판매 수익 정도.

○ 향후 진행 계획 : 판매하고 남은 옷들 해외 기부, 작은 음악회 지속적 진행, 지역주민의 재능 기부를 통한 강의 마련, 지역 내의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검진, 장떡, 고추장 등 나눔 행사 등.

(3) 마을사랑축제

주관단체	신사모
최근 개최일	2014. 9. 27
개최장소	신흥동

○ 개최 목적과 배경

-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화합하고 문화를 누리는 장을 마련.

- 마을 내 노래 교실을 20회 진행하면서 마을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청취를 토대로 '함께 사는 이야기'를 마을 축제의 주제로 선정.

○ 주요 프로그램 : 마을바자회, 전시, 노래자랑

- 연 만들기, 딸기잼 등 마을 주민들의 스토리가 담긴 물품 혹은 재능 전시.

○ 특징 : 경제적 이익 창출보다는 가족적 분위기로 주민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초점. 바자회 수익금을 차년도 축제 기금으로 활용하는 정도.

○ 홍보방법과 참여도 : 지역 주민들의 입소문에 의존.

- 마을에서 진행하는 노래교실에서 가수 초청 시 주민들에게 축제 홍보.

- 약 150석 정도의 좌석이 가득 참.

○ 향후 진행 계획 : 초등학교 앞 공간을 활용해 먹을거리 판매, 외부 가수 초청은 지속, 어르신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안마 서비스,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보완, 마을 주변을 코스로 한 걷기 대회 등.

(4) 주민화합한마당

주관단체	소통과 화합의 한밭자이
최근 개최일	2014. 6. 28
개최장소	대전 동구 삼성2동

○ 개최 목적

- 주민간 화합과 소통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줄임.
- 단순한 일시적인 환경 미화를 넘어 세대간 많은 교류로 공동체감 형성.

○ 주요 프로그램

- 2013년에는 아파트 단지 내 잡초 제거, 청소, 환경미화 거리 캠페인 등 진행
- 2014년에는 전통 고추장 사업 진행 : 아이들이 직접 고추장을 만드는 체험을 하고, 어르신은 만드는 방법을 전수.

○ 특징 : 마을주민들이 힘을 합쳐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시작된 축제.

- 층간 소음을 없애기 위한 실제적 고민에서 출발해 서로 대화하고 화합하는 축제로 발전.
- 고추장 담는 행사를 축제 이외의 기간에도 진행해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면 경제적 수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음.

○ 홍보방법과 참여도 : 현수막과 아파트 내 방송을 통해 홍보 진행.

- 400~500명 정도 참여. 1회에 비해 2회째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
- ‘한밭 자이’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참여함.
- 아파트 주민과 주택 주민 간의 호응에 다소 차이를 보임.

○ 향후 진행 계획 : 글짓기나 그림 그리기 대회, 지역 주민들 참여 노래자랑.

2) 대전 중구

(1) 대흥동립만세

주관단체	대흥동립만세를 꾸리는 사람들
최근 개최일	2014. 8. 15 ~ 8. 24
개최장소	대전 대흥동 일원의 카페나 열린공간 우리들공원
최초개최연도	2008년, 2014년 현재 7회째 진행
주제	“스스로 진화하는 축제”

○ 주요 프로그램 : 프리마켓, 공연, 전시, 프린지 페스티벌

○ 개최 배경과 목적

- 2006년과 2007년에 대전발전연구원의 지원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축제를 하다가, 3년 차에 지원이 끊겨 축제를 못하게 됨. 이를 계기로 2008년 대흥동 주변의 50여 개 문화 단체가 모여 축제를 재개최.

○ 특징 1. 축제 장소의 장소성을 깊이 고려 : 문화 예술 거리

- 과거 카톨릭 문화화관,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대다수 문화 예술 공연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술인들에게 대흥동은 주 무대나 마찬가지임.

- 다양한 갤러리, 표고사, 책방 등이 있어 문화 예술 쪽 일번지 역할을 해옴.

- 둔산동이 생기며 분산됐지만, 아직까지도 예술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음.

○ 특징 2. 투입비용대비 효과 높아

- ‘돈 없는 축제’ 진행 : 40~50팀이 무료로 참여해 공식적으로 90만 원 정도 소요.

○ 특징 3. 다른 축제로 파급 효과

- 비슷한 내용의 행사들이 개최되기 시작(‘중교로 차 없는 거리’ 등)

- 대전문화재단의 진행 사업과 ‘대흥동립만세’ 의 내용이 비슷해 갈등도 발생.

※ 참조 : 대전 예술인들 “시가 축제프로그램 표절“ 반발 <연합뉴스> 2011. 4. 7

대전시가 내달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중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문화공연 행사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시가 자신들의 축제 프로그램을 표절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 '대흥동립만세를 꾸리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08년부터 대흥동에서 '문화예술의 1번지인 대흥동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음악, 무용, 연극, 미술,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을 기획해 '제1회 대흥동립만세' 축제를 열었다.

'돈이 들지 않는 축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연자들에게는 한 푼의 출연료도 지급하지 않았지만 30~40대 예술인 10여명의 동참이 잇따랐다. 이들은 카페 잔디밭에서 클라리넷 연주회, 맥주바의 색소폰 연주, 평생학습관 마당에서 일본 배우들의 거리 연극, 골목 안 막걸리집의 '대전부르스' 노래부르기 대회 등 비주류 공연으로 꾸며진 '프린지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거리에서는 옛날 극장에서 볼 수 있었던 영화간판 전시회 등을 진행했다. 예술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파는 '아트프리마켓'도 열렸다.

제1회 대흥동립만세 축제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200여만원으로 축제 참여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부담하는 '문화기부' 형태로 이뤄졌고 올해 8월에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에서 내달부터 공연.전시, 프린지 페스티벌, 아트프리마켓 등의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대흥동에서 문화행사를 열기로 하면서 이들의 축제는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시에서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 대전문화재단이 주관단체를 선정해 축제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어서 예산이 없는 이들의 축제는 묻혀버릴 위기에 놓인 것.

대흥동립만세를 꾸리는 사람들 소속 서은덕씨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축제이고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즐기는 축제로 자리잡았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에서는 프린지 페스티벌이나 아트프리마켓은 예술인 축제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베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왜 하필이면 비슷한 행사를 3년이 넘게 진행해 온 대흥동에서 치르려는지 의문“이라면서 “지원금도 없이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잘 진행하고 있으면 관심은 두지 않더라도 기를 꺾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2) 제 8회 중촌마을문화축제

주관단체	중촌마을문화축제 기획단
최근 개최일	2014.10.18
개최장소	자유총연맹 내 광장
최초 개최년도	2007년, 2014년 현재 8회째 진행
주제	동네사람들, 우리 함께 놀아요

○ 주요 프로그램 : 공연, 체험, 전시, 먹거리

- 중촌초등학교 밴드부의 데뷔무대, 마을에 거주하는 청년 설치미술작가의 ‘망루와 우물’ 특별전, 결혼이주여성 참여코너, 마을절전소팀의 자전거로 바나나 주

스 만들기 체험 및 노인정 어르신들의 달걀꾸러미 만들기 체험 등

- 이동도서관 등 각 참여 단체별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 어린이 집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무대 공연. 초등학교 풍물, 어른 풍물, 동네 합창단 등 공연.

○ 추진주체 : 마을 내 노인정,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마을동아리, 마을극단, 마을기업, 시민·교육단체와 인근지역인 목동, 선화동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 등이 축제추진단으로 참여.

○ 개최 배경과 목적

- 2007년부터 도서관 주최로 '도서관 책 축제'가 진행. 이후 마을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2010년부터 마을축제로 발전

- 축제의 목적은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 특징

- 인원동원식 행사를 벗어나 자발적으로 시작,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이전에도 주민들이 직접 후원금을 마련.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의 공동체 형성에도 더욱 실질적 효과를 보임.

- 도서관뿐만 아니라 16개 정도의 유관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 마을 주민의 공동체 활성과 화합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수익 모델 발굴에 관심이 없음.

○ 홍보방법과 참여도 : 추진위 내 홍보팀을 두고 있음.

- 홍보팀은 주로 SNS 홍보, 현수막 디자인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

- SNS를 통한 홍보효과가 가장 높아 : 웹 포스터를 이용해 축제 3주 전부터 SNS에 홍보를 시작. 각자 개인 계정을 이용해 축제 포스터를 공유하며 홍보를 진행.

- 연간 2,000명 정도가 참여하며 주변 지역인 목동 주민도 참여.

- 초창기 몇 년은 굉장히 참여도가 높았지만, 최근 다양한 축제가 동일한 기간에 많아 분산되는 느낌.

3) 대전 서구

(1) 꿈터마을축제 공연(월평1동 주민화합 및 경로잔치 공연)

주관단체	난타로 소통하자
최근 개최일	2014. 9. 20.
개최장소	월평1동 주민센터 옆 공원

○ 개최 목적

-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며 정을 나누고 화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요 프로그램 : 먹을거리 판매, 책 읽어주기, 핀 만들기, 헌옷 판매 등

○ 특징

- 2003년 이외에 매년 봄에 축제를 진행.

-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회의를 통해 주민들끼리 의견을 조율하며 모두가 축제를 만들어가는데 참여.

- 가족, 잔치 같은 분위기로 편안하게 진행됨.

○ 홍보방법과 참여도 : 500명 정도 참여.

- 월평 마을 신문에 마을소식 칸에 축제 소식을 실어, 아파트나 주민 센터, 지역 상가에 비치해 둠.

- 이외에 현수막 게시, 아파트 내 전단지 부착, 꿈터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한 밴드 홍보 등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홍보 진행.

- 직접 방문과 주민 센터에 신문을 비치해두는 방법이 효과가 높음.

○ 마을 축제로 인한 경제적 수익 모델 : 먹을거리 판매 수익 정도.

- 경제적 수익을 위해서만 축제를 하기보다는 적정선을 유지해나갈 예정.

○ 향후 진행계획 : 일회성 프로그램 지양하고, 상업적이기보다는 소박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나아갈 계획

- 꿈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축제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노력.

(2) 달팽이 마을잔치

주관단체	달팽이 어린이도서관
최근 개최일	2014. 10. 25.
개최장소	서구 달팽이 어린이도서관 근처 놀이터

○ 개최 목적

- 달팽이 어린이도서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책 축제를 시작했다가 작년부터 마을 축제로 확장됨.

○ 주요 프로그램

- 피리 만들기, 생태 관련 체험 등 체험부스 위주로 축제 운영.
- 마을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함.

○ 특징

- 자발적으로 마을 주민 분들이 편안하게 참여하는 축제로 진행됨.
- 먹을거리를 통해 후원금을 마련해 경제적 수익 효과.

○ 홍보방법과 참여도 : 주로 전단지와 현수막을 통한 홍보.

- 도서관을 중심으로 어머니들 사이의 입소문이 좋은 효과를 보임.
- 체험 위주다 보니 아이들의 호응이 좋음.

○ 향후 진행 계획 :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연 만들기 전수, 서예 교실(가훈 써주기 부스), 중학교 동아리 공연 등.

4) 대전 대덕구

(1) 회덕동 학습마을 굴다리 축제

주관단체	회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덕동학습마을추진위원회
최근 개최일	2014.10.18
개최장소	회덕동 주민센터 뒤 읍내동 굴다리
최초 개최년도	2011년, 2014년 현재 4회 개최

○ 슬로건: “천년고을 회덕, 2만여 주민의 삶과 지혜로 백년을 기약하는 축제 함께 만들어요.”

○ 개최 목적

- 일제 때부터 있는 7개의 굴다리를 마을의 특색으로 살려, 역사성도 이어가고 문화를 같이 나누자는 측면에서 굴다리 축제 진행.

- 장동, 연축동, 와동, 신내동, 읍내동 사이로 철도가 관통해 단절 요인으로 작용해왔는데 단절된 마을들을 화합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 주요 프로그램 : 재능 공연, 체험행사, 영화제

- 옛 회덕현의 문화재 탐방로에서 주민과 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15개팀의 재능공연, 주민노래자랑, 12개의 체험마당, 먹거리마당 등 축제 한마당 개최.

- 2014년 굴다리 영화제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카메라 교육을 받고 촬영, 편집하며 영화를 직접 제작.

-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지역 어르신이 출연해 알려주는 내용.

○ 특징

- 전국 유일의 7개 굴다리를 모티브로

- 굴다리 축제에 학습 마을 프로그램을 포함해 주민들이 화합되는 분위기에서 행사를 진행.

- 회덕동 철도 굴다리는 지난해 따뜻한 마을 조성사업 및 담장 미관 개선사업을 통해 굴다리라는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산뜻하게 정비.

- 이 축제의 고유한 특징은 굴다리라는 지형을 살렸다는 데 있음.

- 축제를 통해 굴다리 환경 미화, 굴다리 LED 설치를 통해 이전에 우범 지역이었던 굴다리가 저녁 산책길로 탈바꿈함.

- 현찰을 사용하지 않고 품이라는 문화 화폐로 축제 때 물품을 구입함.

- 문화화폐 사용 목적은 금전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옛날 화폐를 이용하며 역사성을 느끼게 하기 위함.

- 품을 이용한 거래로 경제적 수익 창출

○ 홍보방법과 참여도 : 1,000여 명 이상 참여.

- 인터넷, 현수막을 통한 홍보

-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축제일로 고정해 인지도가 높음.

- 강강술래, 농악, 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참여.

○ 마을 축제 자립을 위한 노력

- 학습마을 프로그램이 수익성을 띠고 있지 않아, 지원을 받고 있음.

- 문화의 집 공모사업,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음.

- 출연진의 재능기부로 축제가 이루어짐.

- 주민센터와 협력 강화로 무대 및 장소 협찬과 홍보 지원

-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시에도 도움을 받기도.

○ 향후 진행 계획

- 마을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회덕동 스토리북을 만들 예정.

- 흔히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아닌, 회덕동에 관한 야화들로 책을 꾸려 아이들 또한 마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500부 정도 발부해, 축제 때 배부하는 동시에 학교에도 배부할 예정.

(2) 주공 3단지 주민화합 어울림한마당 대축제

주관단체	대덕구 법1동 주공3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최근 개최일	2014. 10. 8.
개최장소	대덕구 법1동 주공3단지아파트
개최횟수	2014년 현재 14회 개최
후원	법1동 주공3단지 관리소, 중리동 사회복지관, 법1동 주공3단지 상가번영회

○ 개최 목적과 배경

- 영세 아파트 주민들 간의 단합과 화합

- 2012년 법 1동 주공 3단지 아파트 아동여성보호, 2013년에는 주공 3단지 아파트 이웃 나눔 실천운동으로 축제를 기획, 진행

○ 주요 프로그램 : 가람예술단의 ‘국악 톡!톡!talk’, 마을 꼬마들이 보여주는 율동, 각 동별 응원전 등 지역주민이 몸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게임 진행

○ 특징 : 인원 동원식이 아니라 순수 주민 참여로 이뤄진 축제.

- 통장, 부녀회장, 관리소장, 상가번영회가 축제의 주체이며, 아파트 주민들이 이에 협조하는 식으로 진행.

- 지역의 공원을 활용하여 축제 실시

- 마을기업을 설립해, 현재 운영회 주관인 마을 축제를 마을 기업 주관으로 진행해 마을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홍보방법과 참여도 : 현수막 게시, 아파트 내 방송, 전단지 부착

- 지역민의 호응이 매우 좋았음.

- 주민들끼리 각 아파트 동별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함.

- 작년 700명 이상이 참여, 약 10% 정도는 타 지역 주민들이었음.

(3) 목상동학습마을축제

주관단체	목상동 학습마을 추진위원회
최근 개최일	2014. 10. 29
개최장소	목상동 대덕문화체육관
최초 개최년도	2011년. 총 4회 개최

○ 주요 프로그램 : 목상초등학교 댄스동아리팀의 ‘독도는 우리 땅’ 퍼포먼스, 들말두레소리 시연 등 공연 프로그램, 떡메치기,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천연비누・양초만들기, 한지 공예 등 체험행사

○ 개최 목적

- 마을 주민들끼리 정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기 위함.

- 학습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을 주민 앞에서 발표회를 갖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함.

○ 추진 주체 : 축제 준비 위원회 구성(10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

○ 특징

- 마을 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

-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수강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 참여로 축제가 이뤄짐.

- '독도는 우리땅 퍼포먼스' 를 진행해, 공연자 뿐 아니라 관람자도 다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축제에 주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홍보방법과 참여도 : 500여명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1,000여명으로 확대.

-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을축제 포스터 공모전 진행, 축제 3개월 전에 학교에 포스터 공모 의뢰해 포스터를 자체 시상, 선정.

- 마을 곳곳에 포스터, 현수막 게시. 아파트 내 방송.

○ 축제를 통한 경제적인 수익 창출 모델

-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제적 수익 창출 모델에 관심이 없음.

-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먹을거리 축제는 마을 내 별도로 진행 중.

○ 향후 진행 계획 : 마을 주민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향.

- 연예인 초청보다는 마을 주민이 직접 공연 할 수 있는 장을 마련.

(4) 연축동, 장동 좋은마을 축제마당

주관단체	이현동 주민회
최근 개최일	2014. 12. 9
개최장소	연축동, 장동, 이현동

○ 개최 목적 : 마을에 대한 홍보와 소득증대

벚꽃을 구경하는 것과 동시에, 마을의 특산품을 판매함.

○ 주요 프로그램 : 근처 자연 마을끼리 연계해 각자의 특산품을 판매.

○ 특징

- 마을 간의 특색을 살리는 축제이자, 이웃 간의 화합 차원에서의 축제.

- 실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판매하여 그 안에서 소통하고자 함.

○ 홍보방법과 참여도

- 농어촌 공사나 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요청.

- 외지의 농어민 축제에 참여해, 팸플릿 배부.

- 팸플릿이 홍보효과가 좋으나 경제적 여건 상 많이 만들지 못해 역부족.

○ 향후 진행 계획 : 마을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 식품 판매(된장, 청국장 등)

5) 대전 유성구

(1) 과학동네 작은 축제

주관단체	시민참여연구센터
최근 개최일	2014. 9. 20.
개최장소	대덕특구 종합운동장(신성 한마음 축제 참여 부스)

○ 개최 배경

- 과학자들이 많이 거주한 과학 동네에서 과학자들과 마을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함

- 연구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으로써 과학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동네'라는 명칭을 쓴 것은 공동체 성을 살리기 위함

○ 행사주체

- 과학부스는 시민참여연구센터 회원이 주축, 수학부스는 공주대 영재 교육원과 협력

○ 주요 프로그램

- 떠오르는 태양 만들기(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원리를 이용한 과학 놀이), 세포 관찰(식물의 이파리를 보고 관찰)

- 2000원 상당 키트를 100개 정도 구매하고, 간이 현미경을 구입

3. 축제 개최과정에서 나타난 현상과 인식

1) 시행착오와 갈등

(1) 예산계획과 실제 집행의 괴리

○ 현장의 마을축제 기획자들은 지원금 사용의 재량권이 낮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금지출성 항목들에 부담을 많이 느낌. 또한 사업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작성의 편의성만 요구하는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천막을 4동 정도 살 수 있는 비용으로 천막을 빌려왔다. 지원금으로 구매를 못하게 하는 게 좀 아쉽다. 지원 받는 돈에 대한 재량권이 한정돼 있는 게 아쉽다. 불필요한 것을 꼭 임대할 필요는 없고, 조금은 구매를 해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재정적으로 융통성이 없어서 활용하는 게 힘들었다. 축제 때 쓸 부분은 정해져 있는데 필요한 곳에 못쓰니깐 힘들었다. - 동구 마을축제 기획자

축제를 소규모로 구성해서 100만 원 내외로 하려고 했는데, 축제가 커지다 보니깐 어쩔 수 없이 부녀회에서 기금을 마련했다. 우리 자부담을 40만원 하려고 했는데 턱 없이 부족해서 100만 원 이상 자부담을 했다. 이런 돈 문제로 갈등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 행사를 진행하면서 회원들에게 고마웠다.

카드로만 계산해야 하니깐, 지역 주민들 것을 구매해주려고 하는데 안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구성해보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 특히 참여자가 많을수록 재료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어서 더 부담스럽다. - 동구 마을축제 기획자

서류 작성이 간소화되기는 했는데 현금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제약이

있으니까 힘들다. 축제는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약이 있으니깐 힘들다. 재량권을 좀 주면 좋겠다. - 중구 마을축제 기획자

우리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안 되고 서류에만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프로그램을 짜 놓은 것도 서류에 맞춰서 수정을 하게 된다. 실질적인 활동가와 시에 계시는 분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 측면이 있다. 자기들 기준에만 너무 중점을 두니까 현장과 괴리가 생기는 거 같다. - 서구 마을축제 기획자

(2) 축제 기획과 준비 인력 내부의 역량과 소통 문제

○ 축제 준비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자원봉사자 모집으로 타개하기 위해 노력.

도서관에서 행사 기획부터 준비, 진행을 전부하려니깐 힘들었다. 인적 재원은 한정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요구하는 건 많으니까 힘들었다. - 중구 마을축제 기획자

행사 진행 때는 인력이 부족하기는 한데, 자원 봉사자를 많이 받는다. 중학생 자녀의 또래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한다. 동아리 등과 연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서구 마을축제 기획자

마을 지역 주민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축제를 준비할 때 인력적인 측면이 매우 힘들었다. 자원 봉사자들도 한계가 있고, 축제 준비인력의 3분의 2 가량은 나이가 많으셔서 힘들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다. - 대덕구 마을축제 기획자

○ 축제 준비 주체들의 역할이 집중되고 분담하기 어려워 혼란을 겪음. 특히 처음 기획당시와 실제 축제 진행과정에서 처음 기획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변

수들이 등장할 때 대처하기 어려워함. 하지만 대체로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협조를 잘 해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가 많았음.

처음에 마을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힘들었다. 축제를 처음 구성하다 보니깐 축제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은 있어서 이런 축제에 관한 자문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 같다. 본래는 단순히 노래자랑만 진행하고 싶었는데 계속 규모가 커지다 보니 축제 당일에 마사지 봉사나 벽화 봉사 등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늘어나 힘들었다. - 동구 마을축제 기획자

우리가 다 엄마다 보니 힘든 일들이 많더라.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거 이외에 천막 같은 거 빌리는 것도 힘들고, 또 여자들인 우리가 천막을 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마이크가 당일 날 작동이 안 되기도 했는데 전문 업체에서 빌리는 것도 비용이 너무 부담되고..... - 서구 마을축제 기획자

필요 물품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건 매년 하다보니깐 노하우가 생겨서 괜찮은데, 그동안 잘 도와주시던 어머니가 이사를 가게 되거나 집안 사정으로 못 도와주게 될 때 이걸 메우는 게 좀 힘들다. 식기 같은 거나 물을 날라야 하는데, 빨리빨리 수거하고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 매끄럽게 축제가 진행되지 않더라. 이렇게 인력이 중요하다 보니 미리 자원봉사 사이트에 올려서 자원봉사자를 받는다. - 서구 마을축제 기획자

○ 문화예술 성격의 축제에서는 참여 예술인들 사이에 기존 기획경험자와 신규 기획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기획 단계에서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다.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려고 연출을 맡겼는데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에 불만도 생겼던 것 같다. 우리가 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결과가 좋지는 않더라. 그런 문제들이 여러

번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한 적도 있고 뒷수습은 우리가 하고 그랬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젊은 기획자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 중구 마을축제 기획자

○ 물품 준비의 노하우가 부족해 시행착오를 겪었고, 일부는 민관협력으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중임.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많이 힘들었다. 솜사탕, 팝콘 등을 해주는 업체를 몰라서 일일이 찾아봐야 했다. 또 주민들에게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 역시 힘들었다. - 동구 마을축제 기획자

야외에서 하다 보니 싱크대나 천막 같은 물자를 마련하기가 힘들었다. 축제가 처음이다 보니 축제 견적을 뽑는 게 좀 힘들었다. 천막 대여 등 정보를 알려주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또 천막을 빌리는 것도 문제인데, 빌리러 가는데 트럭도 필요하고 설치하는 것도 힘들었다. 작년에는 이랬지만, 올해에는 활성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동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했다. 관리 사무소 측과 천막 구입 관련해 협상 중이다. - 동구 마을축제 기획자

○ 축제 참여자 인원 동원의 압박을 내부적으로 느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스스로의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음.

하루에 모든 걸 하다보니깐 너무 복잡하고 공연도 빡빡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 전체를 축제의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축제의 기간을 둬서 지역을 축제의 공간으로 꾸미자는 제안이 있었다. 보여주고 싶은 건 많은데 전부 못 보여주니깐 축제기간을 일주일 정도 둬서, 각 단체 별로 보여주고 싶은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초등학교에서 전야제를 해 공연을 하고, 당일에는 축제 다른 행사에 집중을 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강당도 빌려준다고 했음에도 인원이 많이 안 올 것 같다는 반대에 부딪혀 못하게 되었다. - 중구 마을축제 기획자

(3) 전통과 공동체의 갈등

○ 새로이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조직화 하는데 대한 기존 마을 구성원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빈번

처음에 부녀회를 조직할 때 회원들이 15명도 안되었다. 부녀회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좋아서 구성하는 거 자체도 반대했다. - 동구 마을축제 기획자

우리 모임이 교회 모임이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좋지 않고, 선입관 때문에 접근이 힘들었다. - 동구 마을축제 기획자

○ 지역적 특성과 계층별 격차가 축제 진행에 어려운 요인이지만, 동시에 이를 해소하는 것이 마을축제의 목적이기도 함.

여기 특성이 중간에 철길이 지나가고 철길을 지나서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까지 아우르는 축제가 돼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 중구 마을축제 기획자

아파트는 여기 지역은 잘되는데 저기 철도 건너서는 잘 안 되는 거 같다. 그곳의 사회복지관은 해마다 함께 하자고 말씀 드려도 좀 시큰둥해 제안 할 때 마다 상처를 받는다. 홍보에 비해 참여도 좀 미비한 것 같고, 철도가 굉장한 장벽이 되는 거 같다. - 중구 마을축제 기획자

○ 때로는 공동주관단체 간에 이념적, 가치지향적 차이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기도 함.

사실 ○○○만 없으면 더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에서

축제를 하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 호칭 문제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그래서 현수막 내용 등 세세한 것부터 제약을 받고 아이템을 발굴이나 축제의 목적을 표현하기가 참 힘들다 - 중구 마을축제 기획자

⑷ 기타

○ 독창적으로 시도했던 마을축제의 형식과 내용을 차용한 유사 축제가 많아져 기존 축제 기획자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현상도 발생.

시나 관에서는 그런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후원을 해주고 잘 성장해줄 수 있는 협업체로 발전하면 좋겠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문제이다.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문화축제가 생겨나니깐 우리 축제가 지금도 필요하나 싶다. 애초에 목적이었던 원도심 활성화도 많이 이뤄져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도 가져주고, 다양하게 사업도 이뤄지고 있으니 지속할 필요가 있나, 다른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 중구 마을축제 기획자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겪으면서 활동 근거지를 이동하려는 고민도 많아짐.

지역이 활성화 되다보면 임대료가 올라가서 가난한 예술가들은 다시 밀려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 시에서는 건물을 매입해서 예술가에게 제공을 해준다던지, 다른 해결책 같은 걸 고민해줘야 된다. 이 동네가 활성화되니 술집이 들어오고, 북적이니 문화 예술보다는 유흥의 거리가 되는 거 같아 동네가 재미없고, 문화 예술의 거리인가 고민이 많다. - 중구 마을축제 기획자

○ 안전상의 문제도 간혹 발생.

우리가 좀 간과한 게 무대 없이 매트를 깔고 태권도 격파를 했었는데 안전요원을 둬도 아이들이 계속 밀려오다 보니깐 한 아이가 격파 파편에 맞아서 얼굴이 조금 찢어졌다. 행사 진행 요원은 제한적이고, 전부 제어 할 수 없으니 안전 문제를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 중구 마을축제 기획자

2) 축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

(1) 주민 간 교류와 화합의 장

○ 대부분의 축제 진행단체에서는 축제로 인해 주민들 참여와 호응이 높아지고 공통의 관심사가 생겨 마을축제 이후에도 소통이나 교류가 활발해졌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축제가 있기 전에는 이웃 간에 서로 인사도 안하고 싸움도 많이 했다. 축제 이후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축제를 하면서 음식도 만들고 음식도 나눠먹다 보니 서로 관계도 좋아졌다, 축제가 공동체를 형성 시켜주는 좋은 매개체가 되는 거 같다. 마을 주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생기기도 하고 축제를 통해 친밀감을 넘어선 지역 주민들 간의 신뢰도 생겨나는 것 같다. - 대덕구 마을축제 기획자

지역 주민들이 더 가까워진 거 같다. 주민들 간에 서로 알게 되고, 바자회가 하나의 공통 관심사가 됐다. 이 축제가 부녀회를 만드는 데 도움 또한 됐다. - 동구 마을축제 기획자

축제가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좋았다. 사람들이 축제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없으면 대화도 안했을 텐데 축제 때 이야기도 하니깐 일상에서 대화도 하게 된다. 축제가 마을 주민 분들에게 하나의 공통 관

심사가 되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역할을 해준다. 소통이 되니까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는 것 같다. - 동구 마을축제 기획자

관계망이 활성화되고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엄청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이게 잘되다 보니깐 전부 다 도와주신다. 마을 주민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축제를 여는데 뭘 하자고 그러면 좀 부정적이었다. 예를 들어 노래자랑에 나오실 때 남자가 그런 데를 나가냐, 상품 받으러 나가냐는 등 주변 눈치를 많이 보셨는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 축제 이후에 마을에 마을 주민간의 모임이 생긴 것 같고 모두가 이제는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는 것 같다. 마을 회관만 하더라 고지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올라오기 무척 힘들어 접근성 때문에 많이 방치되었는데 이제는 잘 활용되고 있다. 축제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정서적인 발전이 되었다. - 동구 마을축제 기획자

날이 갈수록 지역 공동체가 더 잘 활성화 되는 것 같다. 옛날에는 나이 드신 소외 계층 분들이 협조를 잘 안 해주셨는데, 지금은 서로 소통하고 화합되고 공동체의식이 생겨나서 협조를 잘해주신다. 정서적 측면에서 마을 지역 주민들 간에 이야기도 나누고, 다른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예전에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과정이죠. - 대덕구 마을축제 기획자

○ 세대 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관계망 형성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

또 어르신 분들이 하시는 체험 부스에 아이들이 참여를 하면 어르신과 아이들의 관계들도 형성되는 거 같고,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공간이 됨과 동시에 어르신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 - 중구 마을축제 기획자

여기에 어머니들이 오시니깐 어머니들 간의 관계망도 확대되는 것 같다. 여기 회원 분들 이외에도 여기 와서 관계를 형성한다. 사실 행사만 잘되고 입소문만 나면 더 많은 분들이 올 것 같다. - 서구 마을축제 기획자

(2) 갈등과 현안의 구체적 해결

○ 이웃을 알게 됨으로서 서로 간 이해도가 높아지고, 층간소음 등 구체적인 민원 횟수가 감소됨.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대대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인데 이를 위해 관계망 형성이 중요하다. 층간 소음도 서로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서로 얼굴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웃을 알아 가면 관계망도 형성되고 갈등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축제를 통해 마을의 공동체도 형성되고, 또 축제에 참여했던 단체들 간의 관계망도 형성되고, 주민들은 몰랐던 단체들도 알게 되고, 공동체적 측면에서 축제가 많은 영향을 준다. - 중구 마을축제 기획자

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되었다. 활동 하다보면 보통 하는 사람만 하는데, 축제를 하니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게 되더라. 동호회나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또 서로서로 알게 되고 저희 부녀회 사무실이 필요하면 빌려줬다.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축제를 계기로 나와도 보고 서로 인사도 하게 됐다. 서로 알게 되니 층간소음 같은 갈등도 좀 해결 되는 것 같다. - 동구 마을축제 기획자

초반에 부녀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부딪치기도 했었는데, 축제를 진행할수록 아파트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회원들 수도 많이 늘었다. 회원들 수는 두배 넘게 늘어났고, 행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 우리가 사업을 받으려고 가가호호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 이때마다 지역주민들이 좋은 사업을 해서 고맙다는 격려도 해주시고, 전부 잘해주셨다. - 동구 마을축제 기획자

옛날에는 아이들이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하고 엘리베이터를 혼자타고 갔는데 이제는 어른을 보면 잘 인사도 하고, 어른들끼리도 서먹했었는데 많이 좋아졌다. 갈등도 많이 줄었다.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민원이 축제 전에는 한 달에 몇 건씩 많게는 10건이 넘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두 달에 3~4건 정도 밖에 안 된다. - 동구 마을축제 기획자

여기가 원래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많이 부딪혔다. 경로당에도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는 열 명도 식사를 안했는데, 이제는 40~50명이 식사를 하면서 자주 모여 대화도 많이 한다. 주민화합과 세대 간의 갈등을 없애는 데 이 축제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준 것 같다. - 동구 마을축제 기획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4회째 축제를 하다보니 거의 알게 되었다. 축제를 통해 마을 보수도 하고 환경 미화도 개선되었다. - 대덕구 마을축제 기획자

○ 원주민과 유입 주민 사이의 소통에 매개역할도 마을축제의 중요한 미덕.

또 이 축제라는 게 기존에 살고 있던 마을 지역주민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 이사해 온 사람들이 새롭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처음에 서먹서먹하고 어색할 텐데 축제에 참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 - 대덕구 마을축제 기획자

여기 마을에는 원주민과 외지인과 여기서 살다 나간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잘 살아야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여한다. 대전시의 체험 휴양 마을이어서 처음에는 댐을 위해서 건축규제 때문에 마을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순수성이 유지된 자연마을이 되어서 관광의 홍보도 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축제가 있기 전에는 관광객이 오면 쓰레기만 만들고 가는 사람정도로 이해했는데 이제는 축제 이후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준다고 좋은 일이라고 주민의식이 바뀌고 있다. - 대덕구 마을축제 기획자

(3) 주민들의 자부심과 마을에 대한 이해 향상

○ 마을 축제로 인해 지역 홍보와 방문객 유치의 가시적 성과

다른 마을에서도 참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걸 해보려고 물어본다.

긍정적으로 마을도 많이 알려지게 되어 동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 센터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다. 축제를 통해서 마을을 알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분들에게 부녀회의 역할도 알리게 되어서 좋다. 각 마을에도 부녀회가 있을 텐데 같이 모여서 동구 한마당으로 모여서 뭔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 동구 마을축제 기획자

마을 축제로 인해 구청장이나 다른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우리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처음에는 영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곳을 보았다면 지금은 지역 주민들끼리 화합이 잘되는 지역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축제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인식의 제고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 대덕구 마을축제 기획자

서울 방송통신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 축제를 촬영해 갈 정도로 다른 곳에서 관심을 갖는다. 축제를 하고 난 후에 지역 신문에도 실렸다. - 대덕구 마을축제 기획자

방문객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전에는 한 달에 10명 정도 왔는데 지금은 100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온다. 이제는 자연경관을 보러 오기도 하고, 물품을 구입하러 많이 온다. 예전에는 이 동네의 존재도 몰랐는데 이제는 이곳의 자연경관과 특산물을 아는 분이 많다. - 대덕구 마을축제 기획자

지역의 자생단체로써 우리 단체가 알려지고 있다. 지역과 주민 센터하고도 유대관계를 가져야겠다. 서로 도움을 주고 유대를 가져야 우리를 알릴 수 있고, 우리 단체가 커지면 이 혜택이 지역의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 서구 마을축제 기획자

요즘에는 SNS를 많이들 하니까 그런 매체를 통해 일본, 태국에서도 찾아오고. 축제 개최 후 SNS에서 축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제 축제는 못 봤더라도 평소에 지역에 찾아와 콘텐츠를 체험하기도 하는 등 SNS의 힘이 상당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 - 대덕구 마을축제 기획자

○ 일부 축제에서는 마을 축제로 인해 경제적 수익 모델을 발굴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마을축제는 경제적 수익 창출보다는 공동체의 유대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축제를 이용해서 우리 마당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판매를 하는 거니깐 소득 증가 차원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거죠. 또 마을이 알려지면 마을 농작물이 잘 팔리게 되니깐 좋은 거죠. 축제를 해서 여러 사람이 와서 구매를 하면 여기서는 편리하게 팔기도 하고, 또 공동체로 파니깐 가격도 싸게 해서 팔 수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렵게 나가서 팔 필요도 없고. - 대덕구 마을축제 기획자

초기에는 도서관에서 진행하니까 도서관 책읽기나 아이들의 체험 위주로 했다. 마을 단체들이 참여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많아지자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분들도 있어서 그에 대한 규제와 기준을 만들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마을 주민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즐기고 가는 것이다. - 중구 마을축제 기획자

축제를 하고 보니깐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러는 것이 지역을 살려봐야겠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접근하는 건 아니다. 사실 관이나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나눠야지 억지로 목표를 설정해두면 잘 안 된다. - 중구 마을축제 기획자

○ 거주 지역에 대한 주민의 자각과 자부심 상승

여기가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서 스스로에게 자긍심도 없었는데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이는 데 도움도 준다. 다른 지역의 도움 없이 축제를 했으니. - 대덕구 마을축제 기획자

수 회째 축제를 하다보니 점점 발표하는 주민은 성취감도 느끼고, 발표를 본 주민은 나도 저런 거 해봐야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의외의 부수적 효과가 많이 나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축제가 하나의 변화의 계기가 된 것 같고, 축제로 마을에 활기를 불러왔다. - 대덕구 마을축제 기획자

○ 타 기관이나 타 단체, 타 지역과의 연대협력 강화에 촉매제 역할을 수행.

지역 홍보에도 80%정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 여기 꿈터와 지역을 알리는데도 도움이 되었고, 학교와의 관계를 맺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도서관이 학교와 연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축제를 통해서 학교와 연대하기가 수월해지는 것 같다. 꿈터와 학교, 주민 센터, 다른 자생단체와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 - 서구 마을축제 기획자

가장 중요한 건 연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축제가 필요하다. 제가 관변 단체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내가 가서 도와줄 의향이 있다. 결국에는 상부상조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축제에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가 축제를 구성할 때 이런 단체들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한다. - 서구 마을축제 기획자

새마을 지도자, 통장 협의회,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와 같은 자생단체들이 한 번에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전부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지역 발전 방향도 이야기도 나누니까 지역민들의 화합적인 분위기는 좋아진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3개, 중학교 한개, 문화원, 평생학습관이 재능 기부 식으로 축제에 참여 하니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 대덕구 마을축제 기획자

공동체가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 자생단체가 참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대화거리도 되고, 또 단체 간에 유기적인 교류도 되는 거고, 또 그걸 바탕으로 주민들이 즐거워한다. 축제를 하기 전에는 우리 마을의 단합하는 공동체 의식은 좀 약했고 그러다 보니 단체나 사람들 모두가 마을 전체의 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제가 생기니 사람들 간에 공통적인 관심사가 생기고, 환경미화 등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관계가 확산되어 나가다 보니 흡사 눈덩이가 굴러 가듯이 사람들 간의 관계도 확대되어 간다. - 대덕구 마을축제 기획자

제 5 장

마을축제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1. 지원의 목적과 방향 설정
2. 지원 방안

제 5 장 마을축제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1. 지원의 목적과 방향 설정

1) 마을축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고려사항

○ 시기적 고려

- 마을 축제가 공동체를 형성해갈 때 어느 시점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필수적인가라는 문제를 짚어야 함.

○ 주민 주도의 범위

- ‘주민 주도’와 축제의 ‘이벤트성’·‘소비성’ 사이에서 초점의 범위를 설정해야.

- 축제의 ‘소비성’과 ‘주민 주도’는 대체로 이율배반적 관계를 지님.

○ 소비성 허용 범위

- 주민 주도형 축제의 핵심을 살피기 위해서는 축제의 소비성을 판단해야.

- 다만, 소비성을 목적으로 한 주민 주도형도 존재. 이 경우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공공적 가치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강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 요구의 공유

- 마을마다 각각 다르게 지니고 있는 요구 수준을 어떻게 표준화 할 것인지에 대해, ‘공유’라는 가치 자체가 마을축제의 대전제이자 목적.

- 마을축제의 목적은 다양한 가치기준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이며 축제 프로그

램에 이를 얼마나 녹여내는가를 지원대상 가운데 판별해야 함.

- 과정 속에서 갈등이 생길지라도, 화합을 전제로 하는 갈등은 얼마든지 괜찮음.

- 축제의 특성상 단기간 내 시적 성과를 내기는 힘들고,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함을 숙지해 장기계획(최소 5년)이 얼마나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지원대상 가운데 판별해야 함.

2) 마을축제의 방향성

○ 마을축제는 지역주민의 축제

- 마을축제에 홍보나 방문객 유치가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

동네 사람들이 한바탕 재밌게 노는 게 좋은 축제의 모습임.

- 마을만의 자연스러움에서 시작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들면 보여주기 식으로 빠지게 됨.

- 지역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고민하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함.

- 지자체에서 축제 평가지표로 방문객 유치 등 경제적, 수치적 효과를 삼으면 축제가 동원 식으로 운영되어 수동적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높음.

○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는 축제로

-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주인 의식을 토대로 한 축제를 천천히 만들어 가야 함. 빨리 하려 하다보면 축제의 의미가 겉돌 수 있음.

- 지역의 역사성이나 향토성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축제가 오래가는 경우가 높음.

- 마을에 관한 탐색 후, 마을의 전설이나 문화유산을 잘 살린 축제를 살려야 함. ex) 부용이라는 여자와 사극이라는 사랑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을 이름을 살린 부사동의 축제 가능.

3) 축제를 통한 경제적 수익모델 창출

○ 축제를 경제논리로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해야.

○ 특히 마을 축제는 경제성보다 지역민들간 화합에 훨씬 더 의미가 있음.

○ 마을축제와 경제적 수익을 지나치게 결부시킬 때 마을축제가 와해될 우려.

2. 지원방안

1)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 마을축제를 지원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공동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가도록 지원해주는 것.

○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공모 진행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

-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 축제를 하고, 지원이 없으면 더 이상 축제를 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인식도 많음.

○ 수요자 중심의 지원

- 수요자 중심 지원의 가치적 측면 : '주민주도성'이 기준.

- 수요자 중심 지원의 재정적 측면 : 축제 지원금의 활용은 축제준비측이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보다 축제 수요자에게 필요한 항목에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유도.

2) 관공서의 역할

(1) 제반 여건 조성

- 많은 축제 기획자들이 관공서의 직접적인 지원보다 플랫폼(홍보, 지원 등) 역할의 지원을 필요로 함

- 마을창고처럼 대전시 물품을 보관해 시민들에게 대여해주는 시스템 필요

- 이를 위해 오프라인, 온라인 대여 신청 시스템 구축 필요

- 대전시에서 각 구별로 열리는 마을축제에 대해 상세한 맵을 구성해 제공하면 다른 지역 축제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고, 축제 기획자로서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음

- 마을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학습동아리 적극 지원.

- 마을에 관해 전문적으로 탐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마을 전문가를 양성.

- 마을 전문가와 지역 주민 간에 상시적 협력관계 구축.

(2) 실질적, 장기적 관심

-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질적 관심

- 즉흥적, 경제적 결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마을축제가 열릴 때와 준비회의 등에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상황을 알고, 축제 기획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마을축제의 준비과정과 개최과정을 포함하는 참여관찰 형식의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야 함

(3) 문화재단,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

- 마을 축제의 핵심 관련 기관으로 대전문화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더 알릴 필요가 있음.

- 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마을 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을 축하 공연에 참가하도록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해 줄 수 있음.

-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위치에서, 시민과 행정 간의 중간자 형태가 되어야 함.

- 다만 지역별 축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상황별 대처법이나 원론적인 수준에 재단과 센터의 범위는 한정되어야 함. 축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주체는 지역민.

3) 절차상 고려사항

○ 서류작성 절차의 편의성

- 마을 활동가 일부에서는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불만을 토로.

- 그러나 서류작성은 마을 활동가의 기술적인 역량 중 하나이며, 마을 행사의 계획, 내용을 외부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서가 필수.

-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성장과정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마을 활동가에게 숙지시킬 필요가 있음.

○ 예산지원의 융통성을 확장해야 함.

- 예산 지원은 단계별로 지원 금액을 분류한 후, 향후 자생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함.

- 마을 축제가 자체적으로 소액의 후원금, 재능기부, 참여비 등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형태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참 고 문 헌

고원규(2011) 지방자치와 지역정체성의 형성-지역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만들기. 〈경제와사회〉 2002년 봄호(통권 제53호). 36~62.

김성현(2005) 지역축제의 지역경제활성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4호(2005 겨울). 221~246.

김철원.서현숙.이태숙(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축제영향 요인 인식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6호, 119~139.

반상철(2007) 지역문화축제를 통한 도시정체성 구현방안 연구. 〈호서문화논총〉. 제21집. 63~91.

안덕초.신현정.김용근(2010) 장소 자산을 활용한 농촌관광마을축제 계획에 관한 연구. 〈농촌관광연구〉 17(1). 67~89.

이홍원(2003). 지역문화축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묵・장인식(2011) 지역공동체기반 마을축제 활성화 방안: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88). 167~188.

정선기(2010). 대전지역 마을축제 활성화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한양명(2005) 요사코이소란마츠리를 통해 본 지역축제의 성공요인. 〈비교민속학〉 28집. 457~484.

홍사열(2012) 축제주도집단에 따른 축제성의 발현양상. 〈실천민속학 연구〉 제17호. 321~358.

정책연구보고서 2015-15

마을축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5년 8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신세기사 TEL 042-488-6577 FAX 042-488-657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